

# 장르별 아티스트 10인 초대 '그라운드서학'

아트갤러리전주 · 서학아트스페이스 4곳 전시장서 23일~5월 10일까지 초대전 개최

서학동 갤러리길에 위치한 아트갤러리전주, 서학아트스페이스에서 '그라운드서학'이라는 타이틀로 공동으로 주최, 오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장르별 역량 있는 아티스트 10인을 초대한다.

이번 전시는 초대전을 통한 갤러리 전시와 스톱 아트페어로 구성하며 조각, 사진, 순수 회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을 초청으로 작가 개인의 작품성향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개성 있는 작품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참여 작가는 아트갤러리전주에서 사진분야의 권중수, 김정현, 손은영, 최수정과 회화의 피아를 초대하였고, 서학아트스페이스에서는 회화의 구상희, 김현영, 지유라, 황은미 및 조각의 김성석 작가 등을 포함 모두 10명의 작가를 초대했다.

이번 전시는 아트갤러리전주, 서학아트스페이스의 4곳의 전시장에서 동시에 진행하며, 겨울동안의 동면에서 벗어나 함께하는 작품발표와 큰 프레임 안을 채워가는 의미로 갤러리, 작가, 관람객 모두에게 새봄의 신선한 영감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작품의 구성에서는 구상화는 소외된 공간을 투명한 소재인 레진의 화려한 색감으로 물성을 통해 화폭의 경계를 넘나든다.

김현영은 캔버스 위로 물감이 겹쳐지고 사포질로 흐트러 가는 과정을 통해 색들의 하모니를 이뤄가는 포근하고 깊이 있는 작품을 창작한다. 지유라는 시각디자인 출신답게



구상희 작가 작품

그래픽적인 조형성과 색감을 차곡차곡 작가의 집을 쌓아가는 현대적인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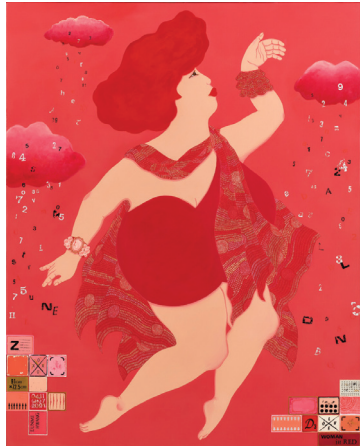
황은미는 일상에서 흔히 보이지만 흘러버리기 쉬운 기억들의 이야기에 상상력과 유머스러움으로 선인장이라는 소재와 풀라주까지 작품의 영역을 넓혀간다.

조각가 김성석은 철을 주재료로 작업한다. 동물들을 인용한 의인법적 표현으로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모습으로 철이 접하는 따뜻한 사람 사는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권중수는 사진의 본질을 조금 벗어난 렌트 필러 방식으로 3d 사진으로 주변이야기를 호기심 있게 보여준다.

김정현은 고전프린트의 하나인 시아노 타입 및 '카본프린트' 등 현재 소멸되어가는 초창기 사진술을 복원하여 본인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있다.

손은영은 가족과 함께하는 기억 속에서 상



황은미 작가 작품

상속의 '밤의 집'을 통해 따뜻한 일상을 찾아가는 작업으로 디지털프로세스를 통해 완성도 높은 디테일한 과정을 통해 작품의 폭을 넓히고 있다.

최수정은 사진, 회화, 관화의 경계를 허무는 겸 프린트(Gum Bichromate Print)를 포함하여 19세기에 발명된 여러 고전 인화 기법을 자신만의 고유한 표현 도구로서 자유로이 구사한다.

피아는 사진, 영화, 회화 등을 활용하여 작업을 하였으며 이번 회화작품에서는 마스크



김현영 작가 작품

를 쓴 캐릭터들을 등장시킴으로서 유머러스한 피아만의 이야기를 선보인다.

이번 '그라운드서학'에서는 소개된 10인의 작가들과 작품을 통해 함께 소통하며, 관람객들에게는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톱 아트페어로도 진행한다. 깊은 겨울의 끝을 지나 신선하고 상큼한 새봄의 신호기로 보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훈 기자



이상봉 디자이너



이생강 명인

##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콘서트 '다담'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예음헌에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 공연을 개최하며, 이번 이야기 손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이상봉 패션 디자이너가 출연해 'K-패션 디자인의 명품화, 세계화'를 주제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상봉은 국제복장학교에서 디자인을 배우게 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한국적인 소재를 디자인의 모티브로 작업하게 된 일화, 김연아 선수의 피겨 스케이팅 의상 제작 등 다양한 후일담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또한 인상깊었던 패션쇼 컬렉션 작품을 영상으로 감상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으로 있다.

한편 우리음악 즐기기에서는 대금 연주의 대가 이생강 명인이 출연해 이생강류 대금산조와 목포의 눈물, 칠갑산 등 오랜 내공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음색과 화려한 연주를 선보이며, 관람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하며, 예약은 누리집(홈페이지) 및 전화(063-620-2329)나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로도 가능하다.

/남원=김기우 기자

## 전주대 문공 교수, 한국시각디자인협회 '대한민국 디자인 공로 대상' 수상

전주대학교 문공 교수(시각디자인학과)가 '대한민국 디자인 공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시각디자인협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그동안 국가 디자인 혁신을 위한 공적과 업적,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디자인 단체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로 문공 교수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문공 교수는 서울과기대 조형대학을 거쳐 한양대 대학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1993년 전주대 교수로 임용됐다. 문 교수는 한국일러스트학회(SOKI) 초대 공로 작가상 2회 수상, 1986년 우리나라 최초 일러스트레이션 전국 공모전에서 수상한 바 있다. 이외에도 세계 유명 전시회에서 다수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선보였다. 뿐만 아니라 시인으로서도 활동하며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공 교수는 "이번 수상으로 지난 40여 년간의 국내외 활동과 노력이 인정받은 거 같아 기쁘다"며 "국내 디자인 분야 발전과 성장에 더욱 노력하고, 후학양성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 문화누리카드 신규 가맹점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 문화이용 다양성 증진을 위해 카드 신규 가맹점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신규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문화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재단 홈페이지 공개 모집을 통한 서류 제출로 신청 가능하다.

문화, 여행, 체육 관련 업종 중 문화누리카드 결제에 희망하는 업체는 모두 등록 가능하며, 이전에 신청했으나 사업자등록증이나 농업가맹점 번호 등의 문제로 등록이 누락된 업체 또한 재신청도 가능하다.

올해는 문화 분야에 미술품과 드론체험이, 관광 분야에는 전세버스와 실내 테마파크(키즈카페 등) 업종이 등록 가능 업체로 추가됐다.

등록된 가맹점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주관처(재단)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가맹점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 전주국제영화제, '시네필전주' 상영작 공개

고전 영화 복원 버전 · 영화 역사 속 거장 기억 구축 다큐멘터리 등 상영

전주국제영화제가 '시네필전주' 부문 상영작을 21일 공개했다.

지난해 신설된 섹션인 '시네필전주'는 영화의 역사를 살아 있는 것으로 취급해 현재의 시선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는 과거의 영화를 다뤄 영화사의 새로운 맥락을 구축하고자 만들어졌다.

올해 시네필전주에서는 장 외스타슈의 '엄마와 창녀(1973)', 스킵 세이준의 '살인의 낙인(1967)'과 같은 위대한 고전 영화의 복원 버전을 상영한다. 또 최근 복구가 많이 소개된 적 없는 발레리아 사르미엔토의 단편 '컬러 같은 꿈(1973)'도 관객들을 만난다.

이어 실험영화의 상징적인 인물 요나스 마카스를 다룬 '낙원의 파편(2022)', 스파게티 웨스

턴 장르의 대표 감독 세르지오 레오네의 이야기 '세르지오 레오네-미국을 발명한 이탈리아인(2019)', 1960년대 영화계에서 파격적인 행보를 선보인 영화감독 피에르 파올로 파솔리니를 아베스 바르다의 시선으로 담은 '1967-뉴욕의 파솔리니(1967)' 등 영화 역사 속 거장의 기억을 구축하는 다큐멘터리 세 편도 관객들을 기다린다.

시네필전주의 탄생 기조인 "영화의 미래는 과거에 있다"를 말한故 장뤼크 고다르 감독을 기리는 미니섹션 '장뤼크 시네마 고다르(1930~2022)'도 준비돼 있다. 그는 1950년대 후반 프랑스에서 젊은 영화인을 중심으로 일어난 영화운동인 누벨바그에 앞장서 영화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거장으로, 영화계에

많은 자산을 남기고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으로, 올해 새롭게 신설된 미니섹션인 '게스트 시네필(Guest Cinephile)'에서는 영화 복원 및 보존 분야의 저명한 인물을 초대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아카이브 관리자부터 영화의 과거를 살리는 데 전념하는 회사, 영화제, 연구소 등 영화 역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이들이 전주국제영화제 관객들에게 소개할 작품을 큐레이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 첫 시작을 허버드필름아카이브(HFA)의 헤이든 게스트(Haden Guest) 원장과 함께 한다. 이처럼 영화 복원 및 보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시네필전주의 상영작을 공개한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열흘간 전주 영화의거리 일대에서 개최된다.

/뉴시스

